

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식약처가 3월 25일 새롭게 출범했다. 식약처는 이날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부, 6개 지방청으로 조직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신설된 농축수산물안전국은 농축수산물의 위생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 영양과 급식 등 식생활 변화 추세를 반영한다. 식약처는 아울러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으로 위임시켰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02 ▶▶ **제1회 소비자 포럼 개최**

4월 26일 소비자, 언론,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한 제1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방향(정부)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소비자단체) ▲불량식품

품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향(식품업계) ▲식품과학자가 바라보는 불량식품 근절 방향(학계)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 내용은 (facebook.com/forummf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 **2013 오승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개최**

식약처가 충청북도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3 오승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지난 5월 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박람회 공동주최기관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화중 공동조직위원장, 정승 식약처장,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 회장, 박람회 홍보대사인 강지환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화장품과 뷰티산업 분야 박람회로서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세계 최초 행사이며 기간과 전시 프로그램도 최대 규모이다. 산업계에서는 오승박람회가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4 ▶▶ **식약처,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 발표**

식약처가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5월 8일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접수 번호 1399'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05 ▶▶ **정승 처장 수입식품검사소 현장 방문**

정승 식약처장이 5월 8일 경인지방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정승 식약처장은 검사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0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가 경찰청과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 정보교환 ▲각 기관 간 단속·수사 협조 등 공동대응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먹을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